

2012년 12월 말 현재 한국선교사 파송현황(통계)

-169개국 24,742명-

KWMA 연구개발실

매년 실시되는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은 한국 선교를 수치적으로 보면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회원단체를 중심으로 조사해 오면서, 점차 조사 범위를 확대하여 회원, 비회원으로 포함시켜 광범위한 조사를 실시해 왔다. 감사한 것은 21세기에 들어와서부터 외부 환경이 어렵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선교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2012년 12월 말 통계 조사의 결과는 169개국 24,742명(이중 소속 제외된 실 선교사 수)으로 2011년에 비해 1,411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는 KWMA의 회원 교단과 선교단체를 포함하고, 비회원까지 가급적 폭넓게 협력을 구하여 응답한 단체를 중심으로 합산된 결과들이다. 실제로 조사 범위에 들어와 있지 않는 단체들도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선교사 수는 더 많다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선교지에서 조사한 통계는 한국 내에서 수집된 통계보다 더욱 많은데, 이는 개 교회 또는 노회(지방회) 단위에서 파송된 선교사 수는 총회 선교부 차원에서 누락되기 때문이다.

1. 응답 교단 선교부와 선교단체 수

교단 및 선교단체 선교사 파송

구 분	조사대상수(개)	선교사 수(명)	비율(%)	이중소속(명)
교단(선교부)	39	11,024	43.00%	304
선교단체	214	14,641	57.00%	1,543
합 계	253	25,665	100.00%	1,847

(선교사 수는 이중집계 포함한 숫자임.)

교단 선교부 소속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 가운데, 43%이며,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는 57%로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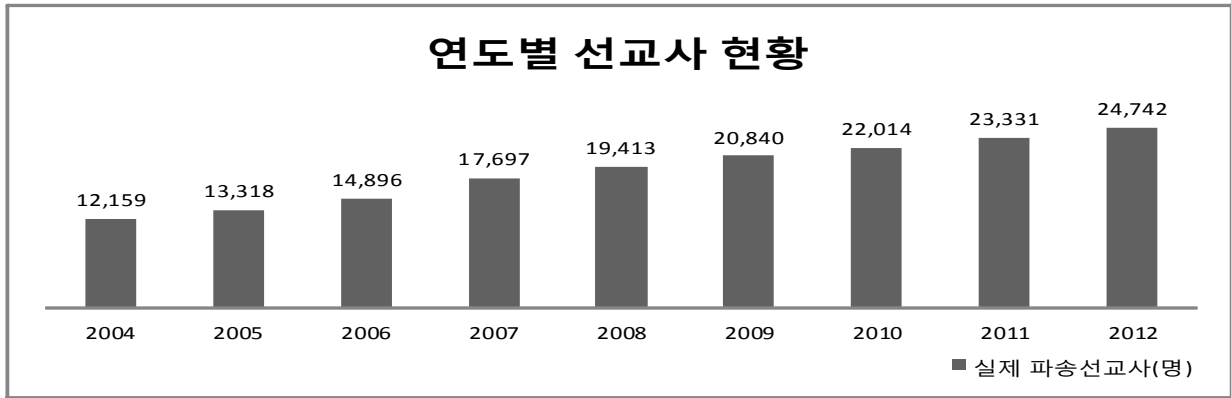
연도별 선교사 수는 다음 표와 같다. 2012년의 전체 실 선교사 수는 24,742명으로 집계되었다. 이것은 이중소속 선교사 수의 절반을 뺀 숫자이다.

1) 연도별 선교사 현황

연도별 선교사 현황 (2004년-2012년)

(단위/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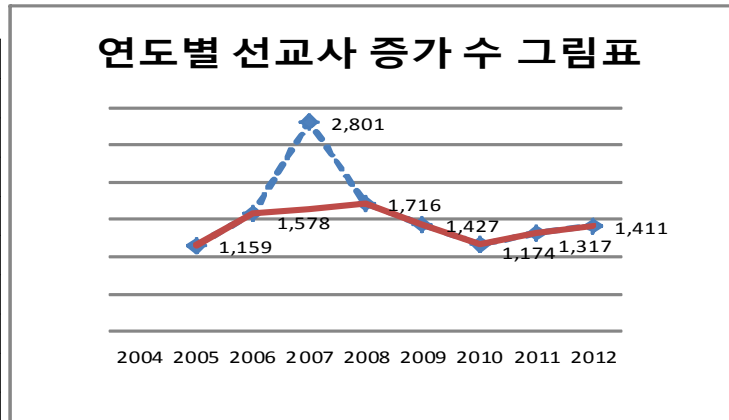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체 파송선교사	12,159	14,086	16,616	18,625	20,503	22,130	22,685	24,001	25,665
이중소속	-	1,536	1,984	1,856	2,180	2,579	1,341	1,341	1,847
실제 파송선교사	12,159	13,318	14,896	17,697	19,413	20,840	22,014	23,331	24,742



2) 연도별 선교사 증가 현황

연도별 선교사 증가 수

연도	증가 수(명)
2004	-
2005	1,159
2006	1,578
2007	2,801
2008	1,716
2009	1,427
2010	1,174
2011	1,317
2012	1,411



* 2007년도에 일시적으로 증가폭이 높아졌는데 그 이유는 2007년부터 조사 대상에 비회원을 포함하여 확대하여 조사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3. 교단 선교부 및 선교단체 파송 현황

2012년 전체 선교사 수 가운데, 여전히 선교단체 소속 선교사가 50%를 상회하여, 교단 선교부 소속 선교사보다 많다. 교단 선교부 가운데 가장 약진을 나타낸 선교부는 GMS로 총 2,263명으로 집계되어, 2011년(2,129명)에 비해 134명이 더 파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금 더 살펴보면 통합측선교부는 2011년 1,237명에서 2012년 1,309명으로 72명이 증가되었고, 감리회선교국은 2011년(1,184명)보다 118명이 늘어서 1,302명으로 정리되었다. 전체적으로 교단 선교부는 꾸준히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었다.

선교단체 역시 선교사 수가 많은 단체들은 예년과 차이가 없이 한국대학생성경읽기선교회, 인터콥, 국제대학선교협의회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상위 선교단체 가운데 인터콥선교회가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2011년 677명에서 2012년 762명으로 85명 증가), 이어서 바울선교회(2011년 323명에서 2012년 398명으로 75명 증가), 그리고 두란노해외선교회가 24명이 증가(2011년 356명에서 2012년 380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송 선교사가 많은 상위 선교단체들 가운데는 선교사 수가 줄어든 단체들도 있는데, 이는 선교사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이름만 있는 선교사나 사역을 끝낸 선교사들, 오랫동안 인턴 선교사로만 있었던 사람들, 단기 선교사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을 선교사의 수에서 정리하다보니 숫자가 줄게 되었다고 담당자들은 설명하였다.

4. 타겟 2030비전으로 본 개척지수별 선교사 현황

2006년 NCOWE IV에서 제시한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 선교사 수에 비추어 본 2012년 현황은 다음과 같다. 상당수의 선교사가 전방개척(F) 지역보다 일반선교(G) 지역인 G2, G1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보다 더 전방개척선교가 강조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구분	전체 국가 수	2012년 파송 국가 수	2030년까지 필요한 한국 선교사	2012년 파송 선교사	2030년까지 더 필요한 한국 선교사	2030년 대비 2012년 파송율	2030년까지 필요한 세계 선교사
F1	11	10	22,316	4,424	17,892	19.80%	102,840
F2	41	40	9,911	5,834	4,077	58.90%	45,694
F3	43	38	58,890	4,737	54,153	8.00%	271,433
G1	74	43	4,733	3,354	1,379	70.90%	21,811
G2	53	38	4,150	7,316	-3,166	176.30%	19,124
계	222	169	100,000	25,665	74,335	25.70%	460,902

* 참고: G는 General Missions 그리고 F는 Frontier Missions의 약자이다. G2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15.5%이상인 경우, G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10%-15.5%미만이며 이중 기독교인의 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값이 한국의 것보다 더 큰 경우, F1은 복음주의자 비율이 5%이상에서 10%미만인 경우이며, F2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 지역이 아닌 경우, F3는 복음주의자 비율이 0-5%미만이고 박해지역인 경우를 말한다.

5. 가장 많이 활동하는 선교지

2011년과 거의 변동이 없이, 동북아X국, 미국, 필리핀, 일본, 인도, 태국, 러시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독일의 순으로 나타났다. 169개국 활동 국가 중, 상위 10개 국가에 전체 선교사의 50% 이상이 활동하고 있어서, 선교사의 쏠림 현상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볼 수 있겠다.

10대 파송국가

번호	국가명	개척지수	권역	사역단체 수(개)	전체 선교사 수(명)
1	동북아X국	F1	동북아시아	148	4,039
2	미국	G2	북아메리카	74	2,593
3	필리핀	G2	동남아시아	85	1,487
4	일본	F2	동북아시아	87	1,438
5	인도	F3	남아시아	77	897
6	태국	F2	동남아시아	58	736
7	러시아/연해주	F2	동유럽	60	642
8	인도네시아	F3	동남아시아	50	628
9	캄보디아	F3	동남아시아	72	560
10	독일	G1	서유럽	28	558
합계/비율		13,578/52.9%			
전체 선교사 수		25,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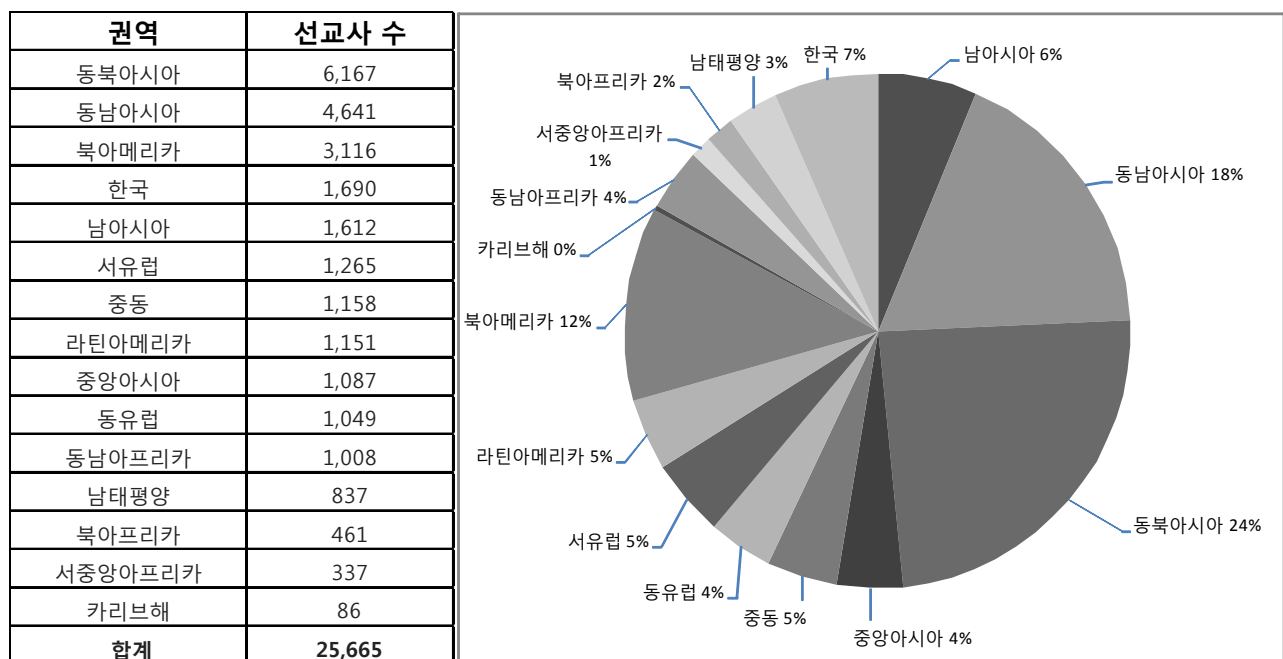
6. 한국 선교사들의 주요 사역

주요 사역의 집계는 한 지역에서 사역자가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어서 표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기록하지 않은 단체들을 제외하고 표기한 것을 중심으로 정리되었다. 가장 많은 사역은 2011년과 동일하게 교회개척, 제자훈련, 캠퍼스/교육사역 순으로 이어진다.

주요 사역 내용	활동 국가 수	선교사 수
교회개척	126	8,846
제자훈련	131	6,883
캠퍼스	70	2,200
교육	67	1,046
복지/개발	65	736
선교동원	14	484
비즈니스	57	462
선교행정	8	442
의료	48	441
문화/스포츠	33	324
어린이/청소년사역	58	318
외국인근로자	12	308
성경번역	31	276
MK사역	12	82
상담치유	11	50
선교정보연구	8	42
문서/출판	11	41
방송선교	8	38
기타	94	848
총계		23,867

7. 지역별 선교사 파송 현황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그 가운데서도 동북아시아(6,167명)와 동남아시아(4,641명)에 만 명 이상이 사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수는 전체 선교사가 25,665명이라고 할 때 거의 1/2 정도가 이곳에 있는 셈이다. 세 번째가 북미주이며, 네 번째의 한국 본부 사역자의 수도 높은데, 그 이유는 선교행정 및 동원 선교사 그리고 비거주 순회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8. 선교사 자녀 현황

연도별 선교사 자녀 현황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자녀 수(명)	5,961	7,380	10,433	11,885	12,674	13,868	14,200	15,913	16,586

(2010년 선교사 자녀 통계는 추정치임.)

9. 한국 선교가 지속적으로 풀어 나가야 할 과제

1) 전방개척 지역으로의 파송의 확대

한국 선교사들이 세계 선교에 담당해야 할 몫을 수치로 나타낸 것이 '타겟 2030(2030년까지의 한국 선교 master plan)의 필요 선교사의 수'이다. 이 수치는 개척지수별로 필요 선교사 수와 현재를 비교해 볼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2012년의 개척지수별 선교사 현황을 3년 전과 비교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균형 있게 전방개척지역으로 파송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1-1) 개척지수별 추이 현상에 대한 비교

2009년에 발표된 개척지수별 현황(2010년 KMQ 33호 참조) 이후 3년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명)

	2009년	2012년	증가	증가율
F1	4,062	4,424	362	10.20%
F2	5,075	5,834	759	21.40%
F3	4,189	4,737	548	15.50%
G1	2,878	3,354	476	13.40%
G2	5,926	7,316	1,390	39.30%
합계	22,130	25,665	3,535	100%

(선교사 합계는 이중 소속 포함된 전체 선교사 수임.)

G2에는 한국도 포함하였으며, 한국 사역자는 2009년에는 1,595명, 2012년에는 1,690명으로 집계되었다. 한국은 본부사역자, 비거주 순회선교사, 인턴선교사들이 해당된다. 여전히 G1, G2지역에 선교사들이 많지만, 전방개척 지역도 꾸준히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선교사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상위 10개국에 50% 이상 선교사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전방개척지역으로의 선교사 증가는 일부 지역 국가에 해당되고 있음을 수치를 분석해 보면 알게 된다.

1-2) 2009년 개척지수 분석

2009년에도 전체 선교사의 52%의 선교사가 10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09년의 상위 10개국은 AX국 (3,688명), 북미(1,718명), 일본(1,376명), 필리핀(1,285명), 인도(728명), 태국(622명), 러시아(612명), 인도네시아(597명), 독일(526명), 터키(482명)이었다. 이 가운데 북미와 독일, 그리고 필리핀을 뺀 7개국이 전방개척지역(F)이다. 이들의 합계는 8,105명으로 당시 전체 선교사 수의 36.6%에 해당되는 수이다.

2009년 F1, F2, F3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전체 선교사 22,130명 가운데 13,326명(60.2%)으로 집계되는데, 이 중 상위 7개국의 전방개척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8,105명이라면, 이것은 상당한 쏠림현상 중

의 하나로 볼 수 있다. F1, F2, F3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¹⁾는 94개국인 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전방개척 지역 국가 94개국 가운데, 7개국에만 60.8%(13,326명 가운데 8,105명)의 선교사가 있고, 나머지 87개국에 5,221명이 흩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3) 2012년 개척지수 분석

이 현상은 2012년에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의 상위 10개국(5번항 참조) 가운데 전방개척지역으로 구분되는 지역은 여전히 7개국인데, 7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8,940명으로 전체 선교사의 34.8%에 해당된다. 2009년과 비교해서 조금 줄어든 비율이지만 거의 비슷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2012년에는 전체 선교사 25,665명 가운데 전방개척지역인 F1, F2, F3 지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14,995명(58.4%)으로, 이 중 상위 7개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가 59.6%(14,995명 가운데 8,940명)으로 나타났다. 한국 선교사가 활동하는 F1, F2, F3에 속하는 국가는 88개국으로 그 가운데 7개국에만 3/5 정도의 선교사가 몰려 있다는 것은, 나머지 81개국에 6,055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년 전과 비교해서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교사 파송 수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지만 전방개척지역으로의 파송은 앞으로 한국 선교계가 풀어가야 하는 과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2) 정확한 수치 파악을 위한 노력

KWMA는 소정의 비용을 투자하여 2011년부터 통계 시스템을 개발한 후, 보다 용이하게 기록되고, 수치의 오차를 줄이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개발된 시스템에 맞추어 금년에 두 번째로 현황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나타난 약점을 발견하면서 시정해 나가고 있다. 3차, 4차 거듭될수록 안정된 시스템으로 응답자들이 편이하게 기록하여, 보다 정확하게 선교사 통계가 나올 것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통계 조사는 얼마나 많은 단체가 조사에 응하도록 하는가가 더 중요하며, 시스템만이 완벽해서 잘 조사되는 것이 아니다. KWMA는 조사 대상의 수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회원단체는 물론이고, 비회원 등 조사의 폭을 넓혀서 통계를 모으도록 몇 년 전부터 노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수가 실제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말하는 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본다. 이러한 차이들을 줄여가면서 보다 정확하게 활동하는 선교사들의 수를 파악해 가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예를 들어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는 공식적인 통계가 560명으로 나와 있지만 캄보디아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이 체감하는 선교사 수는 1,281명으로 말하고 있다. 캄보디아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의 선교사들은 공식적으로 국내에서 발표하는 수보다는 더 많다고 말한다. 이것은 노회 파송, 개 교회 파송, 또한 파악되지 아니한 크고 작은 선교단체들의 파송,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파송 등 조사대상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선교현지에서 파악되는 선교사 수 통계

KWMA는 지난 20여 년간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사들의 동향 취재에 관심이 많았다. 그들의 실제적 필요(Felt Need)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리핀 마닐라에 ‘한국아카데미’라는 선교사 자녀학교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선교사들은 각 국가마다 한인선교사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선교사 파악도 하고 있었다. 한 가지 발견된 점은 한국선교사 통계에 있어 국내 파송단체를 통한 조사와 현지 선교사들의 조사 및 예측치와의 차이이다. 몇몇 나라는 한국에서의 통계보다 다소 적은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한국 통계치보다 현지 선교사 수가 훨씬 많았다. 따라서 KWMA에서 2012년 한 해 동안 현지 선교사들을 통해 채집된

1) 각 개척지수에 해당되는 국가 수는 약간의 변동은 가져왔다. 2009년에는 5개 지역에 228개국으로 구분되었는데, 홍콩 같은 지역은 중국으로 편입되는 등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KWMA 통계시스템이 시작된 2011년부터 222국가로 수정되었다.

선교사 수 예측치와 한국 조사치와의 비교를 다음과 같이 하여 보았다.

한국 조사치의 국가별 통계는 이중 선교사가 포함된 것이기에(총 숫자 25,665명, 169국가) 이중 집계를 감한 비율($24,742/25,665=0.964$)을 산정하여 실제 파송된 선교사를 국가별로 정리하였다. 또한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아 샘플링을 대륙별로 하여 전체를 조망해 볼 수 있게 조사하였다. 샘플로 조사한 국가는 아시아 지역 12개국(동북아시아 3개국, 동남아시아 5개국, 남아시아 3개국, 중앙아시아 1개국), 중동 4개국, 아프리카 5개국, 동유럽 및 유라시아 3개국, 라틴아메리카 2개국으로 총 26개국이다.

현장에서 본 수치는 현장 선교사들이 추정하는 수치를 종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선교사협의회 회장이나, 시니어 선교사들(최소 3명 정도)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그리고 현장 방문 시 직접 문의 등을 통하여 확인된 수를 종합한 평균적인 추정 수치임을 밝힌다. 오차가 (-)인 국가는 현지 선교사회에 가입한 수, 또는 파악 가능한 숫자만 보고된 듯하다.

선교현지 활동 선교사 현황 조사

(단위/명)

번호	나라	국내집계 2012 파송 수	이중소속 집계 감한 추정수치 (①×24,742/25,665)	현장에서 본 수치	오 차	비 고
		①	②	③	③-②	
1	AX 국	4,039	3,894	5,500	1,606	현지 주요기관 추산은 8,000여 명
2	필리핀	1,487	1,433	2,700	1,267	통합측 모 선교사는 최대 5,000명까지 추산
3	캄보디아	560	540	1,281	741	현지 모 선교사는 2,000명 정도라 표현
4	인도네시아	628	605	855	250	파악이 힘들 정도로 최근 급증
5	케냐	169	163	350	187	
6	인도	896	864	1,000	136	
7	베트남	487	469	600	131	최근 급증
8	일본	1,438	1,386	1,500	114	
9	파키스탄	170	164	270	106	
10	태국	736	710	800	90	
11	몽골	408	393	450	57	
12	우크라이나	97	94	121	27	
13	보츠와나	15	14	20	6	
14	중앙아 I국	4	4	10	6	
15	중동 A국	29	28	34	6	
16	그루지아	7	7	11	4	
17	우루과이	8	8	10	2	
18	코스타리카	27	26	21	-5	
19	레바논	34	33	26	-7	
20	폴란드	22	21	13	-8	
21	카메룬	25	24	15	-9	
22	모리타니아	21	20	8	-12	
23	수단	27	26	12	-14	
24	스리랑카	107	103	85	-18	
25	중동 AX국	47	45	25	-20	
26	요르단	188	181	162	-19	
합 계		11,676	11,256	15,879	4,623	

상기 도표를 통해서 종합해 보면, 2012년 말 현재 전 세계에서 활동 중인 한국 선교사는 34,904명으로 추산될 수 있다고 보겠다. 이 수치는 한국에서 조사된 각 국가별 선교사 수와 현지 선교사들의 추정치와의 비율($4,623/11,256=0.4107$)을 실 선교사 수(24,742명)에 반영시켜 나온 수가 10,162명인 바, 이 수치는 기존 통계 수치에 표현되지 않은 선교사 수로 추정할 수 있다. 부연 설명하자면 상기 샘플링 조사 26개 국가의 국내 조사 선교사 수는 11,256명인데, 해당 26개 국가에는 4,623명이 더 많게 추정되었기에 이를 전 선교사 수 24,742명에 반영하여 나온 수가 10,162명이 된 것이다. 따라서 선교지에서 추정하는 선교사 수는 국내 조사 24,742명에다 10,162명을 추가한다면 34,904명으로 추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통계의 의미는 본국에서 조사되는 선교사 수보다는 훨씬 많은 선교사들이 현장에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4) 협력과 감사

선교사 현황 파악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하고, 무엇을 줄여야 하며, 어떤 선교적 과제들이 있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틀이기 때문에 최대한 정확한 수치 파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례적인 통계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는 단체들의 자세가 매우 중요함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

우리는 한국선교가 꾸준히 양적 성장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한국 선교가 21세기 들어오면서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도 양적 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선교사 현황 조사는 한국 선교의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사역에 협조해 준 모든 단체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린다.